환경이 살아야 건강한 삶이 보장됩니다

강원도 환경지키기, 도민의 건강지키기에 나선 **박수준 환경보건국장**

강원도의 자연과 도민의 삶 지킴이

정말로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 진심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고민하는 사람, 환경과 건강을 위한 실천을 행하며 스스로 지킴이가 되려는 사람…….

그러나 어떤 표현으로도 강원도 박수준 환경보건국장의 자연사랑과 도민에 대한 애정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가 검은 양복을 즐겨 입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검은 양심은 지구를 떠나라는 의미에서 검은 양복을 입습니다. 검은 양심은 모두 장사지내 버려야 합니다. 환경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21세기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준 국장은 요즘,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 공기와 땅과 물이 몸살을 앓게 하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관광지가 많은 강원도는 특히 여름철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한 환경문제입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도 산업 쓰레기 못지 않게 심각하지요. 자연은 받은 만큼 돌려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고통을 준다면, 자연 또한 그만큼의 고통을 우리에게 돌려 줍니다. 이미 이러한 자연의 보복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자연과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쓰레기 대책을 위한 회의와 쓰레기 적게 버리기 실천 유도 홍보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민·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5대 암겸진 사업 실현

그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

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다. 그는 강원도내의 서민층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요즘들어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 주변 서민층이나 농촌주민들에게 건강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민선도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5대 암검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5대 암검진 사업'은 지난 해 박국장의 적극적 추진으로 실현된 사업으로 4억8천여만원으로 도입한 특수 검진 차량을 이용해 1억2천여만원의 검사비를 들여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각 종목당 2천명에 대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시작된 이 검진에서 8월말 현재 32명이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를 받았고 38명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한다.

『순회 검진이 실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에도 와 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검진에 대한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 운영 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뒷받침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노인 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고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도 복지정책의 중요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 건협 정순표 사무국장과 함께 담소하는 박수준 국장

도민의 얘기에 귀기울이는 생활

박수준 환경보건국장이 이처럼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질적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활이 도민의 얘기에 귀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는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과 등산을 하고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다. 그리고 찻집에 들러 차를 마시며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8시에 출근해 신문을 보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는 이 시간동안 곳곳에서 만나는 도민들이 나누는 대화에 귀기울여, 무엇을 가장 불편해하고 무엇이 최대의 관심사인지를 주의깊게 듣는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항상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강한 추진력으로 일하는 박수준 국장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 행정'을 항상 강조한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특히 최선을 다한 직원이라면 그 직원의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일하는 윗사람의 자세도 중요하겠지요.』

박국장은 그래서 인생이 즐겁다고 한다.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두려운 것이 없다고…….

오래 전 백운산을 개간하면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 80여명을 데리고 살만큼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했던 박수준 국장은 그때 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을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해 1남 2녀를 두었고 지금까지 뜻을 같이하며 살고 있다.

강원도에서 학교를 마쳤고 내무부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일 외에는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화천군수, 강원도 감사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와 함께 해온 토박이 박수준 국장.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를 지키고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고 키우고 가꾸고자 노력하는 박수준 환경보건국장의 강원도 사랑이 모두의 가슴에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내 조국의 강산과 가장 민족적인 것을 지키고자 하는 작지만 큰 혁명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